

장일범의 클래식 세상만사



서울시향 프로그램 복과 예술의 전당 생중계

지난 15일 저녁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서울시향 공연을 보러갔다가 내년 2014년 서울시향의 일정이 담긴 프로그램 복을 받았다. 자신감 넘치게 가득 차 있는 일정 속에는 각 공연의 지휘자와 협연자 그리고 레퍼토리가 일목요연하게 담겨있었다. 게다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나 뉴욕필에서 또는 메이저리그 야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의 시리즈를 만들어라(Create your own series!)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자신이 직접 콘서트를 골라서 할 인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은 것이다. 오케스트라 측에서는 청중을 미리 확보해서 좋고 청중은 자신이 원하는 공연을 먼저 원하는 자리와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다.

이렇게 요즘의 공연장의 선진마케팅은 다른 장르에서 배워온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실적이 좋은 마케팅 방법을 저마다 도입하는데 스포츠에서 성공하면 공연예술

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구단이나 오케스트라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기나 공연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홍보의 수단 또는 직접 구매해서 보도록 만들고 있다. 베를린필 디지털 콘서트홀, 빈 국립오페라극장과 뉴욕 메트로의 오페라 공연 라이브 상영(생중계)과 아카이브화가 바로 대표적인 예다. 영상으로 자주 접한 사람들이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직접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보러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향의 소비자인 청중이 직접 고르는 시리즈 티켓의 의미는 매우 크며 점차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받아들여야 할 마케팅 방법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지난 토요일인 11월 16일 오전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해설이 있는 토요일콘서트'를 안동, 전주, 여수, 대구의 문화예술회관과 공연장 그리고 CGV 영화관에서 상연했는데 첫 상연에 대한 반응이 꽤 좋다. 이런 HD공연 생중계 작업은 미래 공연예술사업에서 꼭

필요한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다.

본격적으로 시행될 내년이 더욱 기대된다. 혹자는 이런 콘텐츠를 서울에서 지역으로 내려보내면 지역예술계는 죽고 서울 예술계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필자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수준높은 해설과 작품을 접하게 되면 지역예술계에 더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더 분발해서 좋은 공연 작품을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향의 프로그램복의 경우 서구 유럽의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일찍 배포된 것이 아니다. 공연티켓이 안팔린다고 불경기 탓을 하고 우는 소리를 하기보다는 티켓을 팔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일찍 준비해서 공연전단과 프로그램도 발표하고 미리 티켓오픈을 하고 홍보도 지금보다 더 일찍 시작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핀란드의 사본리나 오페라 페스티벌 그리고 독

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등은 이미 2014년 여름 페스티벌 일정표와 세세한 확정 프로그램이 다 결정되어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 공연티켓을 사거나 신청할 수도 있다. 심지어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은 내년 2014년 스케줄이 2013 페스티벌을 치르고 있는 여름 동안에 나왔을 정도로 여름철 수많은 전세계의 관광객들을 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포츠와 영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공연들은 사실 모두 동업자이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다. 밤의 엔터테인먼트를 책임지고 있는 장르들이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더 많은 청중과 관객을 모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연단체들도 서구와 같은 시준제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보다 발빠른 설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일찍 확정하고 보다 많은 청중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음악평론가·KBS클래식FM '장일범의 가정음악' MC>

종교칼럼

감사를 연습하라



김재영 광주 성안교회 담임목사

우리의 감사 태도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활기를 띠게 하고, 그들에게 삶의 생기를 부여하고, 그 결과 그들 모두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다고 한다. 어릴 적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작두 형식의 물을 퍼내는 우물이 있었다. 그 우물은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 주어야 새로운 물을 내어 주었다. 한 바가지 물을 넣고 엄청난 양의 시원한 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감사도 마치 그렇다. 작은 감사의 마중물을 넣으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일 하고, 더 잘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도 더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한 삶의 촉진제가 된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난 24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한다.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의 창문을 열면서 감사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는 감사를 연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해 보라. 하루를 함께 뛰어 갈 가족을 향해 “고마워요!”라고 격려해 보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감사할 거리이다. 감사는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억하

기 바란다. 감사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캔달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신은 감사를 좋아하신다. 그러나 감사는 훈련이다. 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해 내려는 노력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우리가 경험한 일들 가운데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내기 바란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찾아내는 데 실패한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분한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당연히 감사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산다. ‘삶이 팍팍한 요즘 감사할 일이 뭐 있겠는가?’라고 한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 또는 분노하게 하는 요인들이 주위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앵그리버드(Angry Bird)’라는 앱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도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OECD가 발간한 ‘2013 삶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으로 OECD 평균인 6.62보다 낮았다.

삶의 만족도는 계속 하위를 맴돌고 있어 한국이 그동안 이룩한 경제적 성과와는 상

당한 괴리가 계속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복지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심리학자 에먼스와 맥클로는 하루 1~2분 정도 투자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이며, 행복을 느끼고, 활력이 넘치며, 친절하고, 잠을 잘 자고, 건강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이 같은 감사의 효과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의 류보머스 키 교수는 “행복의 50%는 유전, 10%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40%는 ‘연습’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다.

감사연습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그동안 간과했던 관계의 긍정적 인 면들을 제대로 누리게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여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감사의 내용들을 나열해 보자. 어느덧 나의 일과에 기쁨의 미소가 드리워져 있을 것이다.

기고

스포츠 마케팅은 국제기구와 ‘권리 전쟁’



배미경 2015광주하계U대회 마케팅·국제업무 부장

있는 필자의 소견으로 스포츠 마케팅은 ‘국제기구와의 권리전쟁’이다. 스포츠 마케팅은 대회의 로고와 마스코트, 명칭 등과 같은 상징들에 대한 권리를 기업에게 주고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대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활동이다.

스포츠 마케팅에서는 국제기구가 글로벌 마케팅 권리를, 개최도시가 로컬 마케팅 권리를 갖는 게 통상적이다. 후원 기업 모집에 앞서 국제기구와 영역 설정을 위한 협상이 선결되어야 한다. 전문용어로는 ‘카테고리 협상’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 통신, 은행, 음료 등 대회에 소요되는 물자와 관련된 기업 항목들 중에 누가 어느 영역의 영입권리를 갖고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결정하는 과정이다. 국제기구에겐 우선적으로 카테고리 리저브(category reserve : 국제기구가 특정 기업 항목을 보호할 권리) 권리가 있다. 국제기구가 특정한 기업항목의 보호를 요청하면 조직위는 그 항목에 스폰서 유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면서

FISU와 마케팅권리를 둘러싸고 지난 3년간 마라톤 협상을 해왔다. 핵심은 카테고리에 대한 영입권이었다. 지난해 FISU가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에 나서면서 정보통신 카테고리 보호를 요청했고, 이때 협상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FISU는 2015년부터 2019년 대회까지를 통합한 글로벌 기업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계획했는데 독자적인 행보를 선언한 광주가 걸림돌이 된 것이다.

그들의 압력은 예상대로 거셌다. 스위스 로잔에서 사무총장과 마케팅국장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날아왔고, 정보통신을 FISU 카테고리로 보호하겠다고하면서 광주 파트너(SK)의 무효를 요구했다. 올해 3월에는 대사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광주를 문제 삼는 등 제 3자를 통해서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여왔고, FISU의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문제제기 하기 시작했다. FISU의 규정을 들어서 경기장을 비롯한 모든 준비과정에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이행할 것을 요구해오는 등 마케팅의 불통은 다른 영역으로까지 뒤틀렸다.

우리는 개최도시 계약서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FISU가 카테고리 보호 권한을 넘긴 것을 그들의 최대약점으로 활용했다. 국내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설명과 유니버시아드 브랜드의 한국에서의 위치가 아직은 낮다는 리서치 결과 등을 제시하면서 FISU 브랜드의 영입력을 FISU가 더욱 지원해야한다는 논리로 세웠다. 이 협상과정에서 설명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가 수백 페이지에 이르렀고, 로잔과 광주를 오가는 강도 높은 해외출장이 한 달에 한번 꼴로 이어지는 강행군이 이어졌다.

결국 카잔대회 이후 FISU가 손을 들었다. 글로벌 권리를 포함한 모든 마케팅 권리가 광주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는 백지였다. 국제기구로부터 글로벌 권리를 모두 확보한 것은 그동안 치러진 어떠한 대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88올림픽, 2002아시아 게임과 FIFA월드컵, 2003 유니버시아드 그리고 또 2014 아시아게임, 2018 동계 올림픽에서도 광주의 사례는 스포츠 마케팅 역사에 이정표로 기록될 일이다. 우리 광주가 해낸 것이다.

생의 직속 부사장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어서 동생은 크게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얻을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이 여성 상사에게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내자 알았다고 하고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회사에서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으려고 한다”고 뒷담화를 하더라는 것이다. 너무나 놀래고 어처구니없었지만, 일단 휴직을 해야만 하겠기에 모르는 척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굳이 법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라 해도, 아

기를 키우는 엄마로서 육아휴직을 좀 하겠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정말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나?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아기를 직접 낳아 보고 길러본 경험이 있는 여성 상사에...

요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비용이 장난 아니게 비싸게 들어간다. 제대로 된 공공 보육시설이 없는 한 출산한 산모들은 비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다.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까.

▲이선화·광주시 서구 마죽동

社說

잇단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규정 시급하다

한파와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화목(火木)보일러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화목보일러는 소방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화(火)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오전 목포시 해안동 연안여객선터미널 인근 상가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횃집 등 13곳이 전소되면서 상인 2명이 다치고, 소방서 추산 2억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도 화목보일러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M식당의 화목보일러에서 연기 배출구가 과열돼 불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 목조 건물인데다 거센 바람에 불길의 삼시간에 번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더구나 이 일대는 도시계획상 한탄시설보호지구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증·개축을 위해 관계당국에 수차례 해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해 피해를 키웠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가 적게 들고, 이

용하기 손쉬워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안전대책은 미흡해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어난 난방기구 화재 227건 가운데 화목보일러가 원인인 경우는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월에는 순천에서 화목보일러에 빨간으로 넣은 폐차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잠을 자던 모녀가 숨을 거두었다.

최근 들어 화목보일러의 보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폐건물에서 나온 폐목재나 주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당의 화목보일러에서 연기 배출구가 과열돼 불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화목보일러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보일러 관리 등에 필요한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가 소방관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정비를 통해 해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해 피해를 키웠다.

병원 보험사기 언제까지 속수무책인가

고가의 한방화장품을 파는 수법으로 치료비를 부풀리고, 실손보험 환자만을 골라 허위 입원을 증용해 10억 원대의 보험금을 받아낸 한방병원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또 허위로 입원해 20여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120여 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18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김모(43)씨와 한의사,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 6명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비 부담표’를 보여주며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고 설득, 허위 입원시킨 뒤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병원비 부담표를 만들어 환자들이 입원하면 내야 할 병원비와 타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세히 비교해 차액을 챙길 수 있다고 환자들을 증용했다고 한다. 특히 치료와 전혀 상관없는 한방 피부관리 및 화장품들을 판매하

면서 이를 치료비로 청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해 요양급여비를 받아 왔겠다고 그야말로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허위환자는 노인부터 초등학교,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한데다 허위입원확인서 발급은 물론 소문을 듣고 대구지역 등 외지에서 찾아왔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는 부패한 병원장과 관계자, 죄의식이 결여된 허위환자 등이 결탁한 결과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데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득, 허위 입원시킨 뒤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를 부릴려면 역대 최대의 사기를 저질러도 대부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처벌 기준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당국은 조사방식을 과학화, 선진화하고 비리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해 보험사기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6·25 전쟁(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 연합군으로 참전한 최고 지도자들이 아들을 잃은 전장(戰場)이었다. 유엔군의 주력인 미8군 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한국전쟁에서 외아들을 잃었다. 그의 아들 지미는 1952년 3월 19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참전 직전 그리스에서 근무한터라 해외에 나갈 자격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있는 한국에 자원했다.

지미는 참전 16일만인 4월 4일 압록강 남쪽에 있는 순천지역으로 정찰 폭격에 나섰다가 행방불명됐다. 네번째 출격이자 첫 단독비행에서 불구의 깃이 됐다.

그해 부활절에 밴 플리트는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군인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는 모

든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놓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며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물었다.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국가주석도 장남을 한국전쟁에서 떠나보내야 했다. 마오쩌둥은 러시아 유학에서 돌아온 아들 마오안잉을 1950년 러시아어

번역관 겸 총사령관 비서로 참전시켰다. 하지만 한달만에 미군 폭격에 의해 희생당하고 말았다.

마오쩌둥은 “혁명전쟁은 언제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내 아들이라서 큰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혼연하게 말했다. 그렇다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회한이 왜 없겠는가.

중국 베이징에서 ‘마오쩌둥과 그의 장남’이란 제목의 연극이 초연됐다. 중국군 출신 연출자는 “마오와 그의 장남은 영웅이다. 연출자로서 그들의 영광을 부활시킬 책임이 있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연출자는 “현재 많은 중국 공직자들이 자신의 부유한 삶을 원하고 있지만 마오쩌둥은 아들에

게 중국 공산당의 신념을 심어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아들을 전장에서 잃은 것 만큼 슬고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없다. 제작의 도야 어평은 ‘이시도자들의 사회적 책무’에 도달하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문화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육아휴직 눈치보지 않는 직장문화 필요하다

육아휴직은 법에 규정이 되어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는 제도이다. 특히나 이 제도는 저출산으로 국가적 고민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육아휴직을 완전 보장해 주어야 할 정도로 필요한 제도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막상 직장에 가면 출산 여성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그것은 법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오로지 직장 내 문화와 분위기에 좌

우되며, 특히나 전직으로 해당 부서장의 재량과 융통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장의 남성 상사들의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가치관도 문제지만 놀라게도 여성 상사들의 고정관념과 보수적인 사고방식도 여전히 그대로다.

얼마 전 직장에 다니던 필자의 동생이 아기를 낳은 뒤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심하고 직장 상사에게 찾아갔다고 했다. 다행히 동

생의 직속 부사장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어서 동생은 크게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얻을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이 여성 상사에게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내자 알았다고 하고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회사에서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으려고 한다”고 뒷담화를 하더라는 것이다. 너무나 놀래고 어처구니없었지만, 일단 휴직을 해야만 하겠기에 모르는 척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굳이 법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라 해도, 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제 목 부 2200-693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